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1주/신년 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이사야 65:17-18(전반절)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49장(새 482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67번(새 93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를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늘 깨어 있어 사명과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보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복이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갈라디아서 6:7-8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봉 헌(offering) …… 358장(새 552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427장(새 191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 주일(14일) 친교 후에 합동임원회로 모입니다.
3. 예배 후 전교인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4. 본당 앞 테이블에 2024년 주소록과 영문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 혹은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친교시간 후 성탄트리를 정리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갈라디아서 6:7-8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 7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 자기를 속이게 됩니까? (7절) 나에게 자신도 모르게 속였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2.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게 될 각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8절)

❖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을 속이는 '자기기만'입니다. 자기기만은 마치 최면과도 같아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진리가 진리인 양 착각하게 하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 자기기만을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타락한 인간만큼 미련한 존재가 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고작 하는 일이 우상과 탐심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섭리를 거스리는 정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는 행위의 실체입니다(롬1:21-32). 사탄은 죄인인 인간을 미혹해서 비진리가 진리인 양 교묘하게 속이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스스로 속게 됩니다(창 3:4-6).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리의 수호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은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이단이나 광신자 집단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소위 정통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교단들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이들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악을 제자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닌 멸망이고 심판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8절). 매일 순간마다 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